

***얼굴 풍경.....2009**

내 친구들을 소개 합니다

일면식은 있으나 친분과는 상관없는 동시대의 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길 없는 길을 가는 동안 길 하나를 보여준 사람들

순전히 개인적 행운으로 다가왔던 만남입니다.

이미지가 먼저 오고 이야기가 따라오면 산책 하듯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름대신 떠오르는 어휘들을 적어봅니다

무장해제, 함께 춤을 추어요, 당신의 첫, 호기심천국, 사랑받지 않을 자유, 고 분 분투, 슬픔이 후, 치밀한 자유-심장의 목소리, 내 이웃의 아트,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앞으로 이 작업이 어떻게 어디까지 이어갈지 알 수 없지만

지구를 떠나는 날, 명량한 추억